
비교의 개념과 문화비교의 적정수준 —서설적 검토

전경수*

1. 논의의 범위

어떤 종류의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제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그 논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에 관해서 적정수준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논의의 결과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묵적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들은 암묵적인 정의를 통과하는 경우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에 대해서 명시적인 정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가족의 형태에 관한 논의를 할 경우에, 가족이라는 것이 논의를 위한 핵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심적인 개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에 관해서는 암묵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형태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암묵적인 정의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명시적인 개념의 정의를 시도하는 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첫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치밀한 논리과정의 분석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치밀성의 확보를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을 더욱 더 확고하게 확인하는 이점이 있다. 암묵적인 정의의 결과와 논리적 치밀성의 확보에 의한 명시적인 정의의 결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치밀성의 확보라는 과정이 바로 논의의 과학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암묵적인 정의라는 것은 ‘신비화된’(mystified) 고정관념에 안주함으로써 현상의 이해를 위한 기반이 되는 중심개념이 허위일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당연시되는 개념에 대한 명시적 정의의 시도가 기여하는 바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교’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비교’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내용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류학의 중심주체인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비교연구라는 것의 실체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 본고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수준에서 필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비교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인류학이라는 학문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

이다. 논리전개의 편의를 위해서 필자는 상기 질문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학설사적인 차원의 비교에 관한 문제를 먼저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의 개념에 관해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논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때 광범위한 논의의 시도라는 것은,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개진된 비교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인접학문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학문공동체내의 보편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터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류학과 비교연구

인류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서 등장한 시기와 장소는 19세기 중엽의 서구사회라고 인정되고 있다. 물론 인류학이란 것의 정의에 따라서는 그 시기와 장소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항존한다. 필자가 19세기 중엽의 서구사회라고 시공의 좌표가 결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타일러의 anthropology를 인식해서이고, 그러한 인식의 핵심은 그가 표현한 문화의 개념에 의거하고 있다. 즉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등장한 anthropology의 중심주제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분과학문이 탄생된다는 것은 중심되는 주제에 관한 논의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즈테카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관해서 엄청난 양의 영조물들과 환상에 가까운 밀도 있는 질적인 묘사들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즈테카인들이 종교학을 발전시켰다고 또는 종교학이 아즈테카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아즈테카인들의 인식과 행동과 조직 등을 ‘융합’해 놓은 것이 그들의 종교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관련되는 것이 하나의 ‘學’이 되기 위해서는 융합된 그 현상을 ‘분열’시켜서 다시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 현상에 걸맞는,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방법과, 그 과정에 관한 ‘과학적’인 논의의 개진이라는 점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을 논의할 때마다 등장하는 ‘과학적’이라는 형용사는 ‘과정’이라는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타일러의 anthropology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anthropology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18세기부터 이미 anthropology라는 단어는 비교해부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었으며(Ackerknecht 1954:124), 그때 논의되었던 anthropology는 모두 해부학적인 인종의 비교에 관한 것들이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는 어떠한 점에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동일한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점들을 논의하던 비교해부학적 anthropology의 방법적인 논리의 특성은 ‘같음’과 ‘다름’의 발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초기의 민족학자들은 주로 ‘다름’의 논리에 편중되어서, 한 장소에 사는 사람의 집단과 또 다른 장소에 사는 인간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타일러의 anthropology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초기의 ethnology도 이미 19세기 초부터 등장되었다(1832년 파리에서 결성된 민족학회). 타일러의 anthropology와 과거의 ethnology는 형태상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민족학은 각 민족마다 소유하고 있는 문화내용의 ‘다름’을 발견하는 작업을 해왔다.

타일러類의 인류학이 비교해부학의 인식과정을 ‘회한한’ 사회의 설명에 도입한 민족학과 다른 점은 바로 방법적 논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자들이 구성내용들 사이의 ‘다름’을 발견하려는 노력만을 시도함과는 달리, 전자는 다른 것들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같음’(psychic unity of mankind)에 대해서 과감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다름’과 ‘같음’을 발견해 내는 과정이 바로 비교의 논리에 입각한 것

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동일한 비교과정을 통하여 한편에서는 궁극적으로 ‘다름’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음’을 추구하였다. 즉 특수성만을 밝히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특수성을 전제로 하여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차이의 발생은 인류학적 사고의 질적 도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류학이란 학문의 여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민족학에서 인류학으로의 전환은 바로 이러한 비교방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논의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보편성의 추구는 곧 일반화의 과정에 의해서 달성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반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론화 작업의 기본적인 명제임을 상기할 때, 우리는 비교방법에 의하여 보편성을 추구한 (Kaplan & Manners 1972:7) 타일러류의 인류학이 담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읽을 수 있다. 즉 일반화 과정을 겨냥한 비교방법은 인류학의 여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부분이 확인된다. 초기 민족학의 방법론적 미숙은 일반화를 지향하는 인류학의 출현을 예고하는 진화의 측면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며, 민족학의 미숙을 완성형으로 이끄는 역할에 일조를 한 것이 비교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비교방법은 인류학설사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래드클리프-브라운에 이르면, “사회인류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에 대한 체계적 비교에 의하여 인간사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고, “비교방법만이 유일하게 일반적 명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방법론적인 차원에 지나치게 심취한 나머지 “사회인류학은 비교사회학이다”라는 단언을 하기에 이른다(Eggan 1965:365-368).

비교연구를 하는 가장 핵심적 가정은 인간행위가 관찰에 의해 확립된 일반법칙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Levi-Strauss 1963 : 85; Przeworski & Teune 1970 : 4; Peacock 1986 : 77). 그러나 Evans-

Pritchard 같은 학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란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왜냐하면, 개별사회는 손가락의 지문처럼 독특하기 때문에 비교불가능한 현상이고, 인류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변수통제가 비교적 확실한 자연과학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Peacock 1986 : 76). 비교방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Leach는 비교론자에 대한 회화적 비판을 한다. 그에 의하면, 비교는 나비채집과 같은 것, 즉 나비의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일 뿐이고, 그러한 분류작업이란 동어반복일 뿐(Leach 1961 : 2-5)이기 때문에 비교와 일반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Leach는 비교과정에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확립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기능적 관계를 증명하는 절차를 간과하고 있다. 즉 비교란 단순한 분류(classifying)가 아니라 분류 + 설명(classifying-plus-explanation)이다(Köbben 1970 : 585-586). 이렇듯 비교에 대해서 갖는 학자들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간략하게 정리해본다면, 인식론이라는 문제를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인간현상에서의 비교가능성이 회의적으로 기울고, 일반화를 추구하는 방법론의 입장에서 서면 비교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실질소득을 기대하게 된다. 비교가 갖는 이러한 양면성을 인식한 Boas는 일찍이 확대된 비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료의 비교가능성이 논증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Boas 1940 : 275).

3. 비교의 개념

학설사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교연구 또는 비교라는 것이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자아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많은 비교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작 “비교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함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본고의 오리지널리티를 시험해볼 수 있는 관건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언하면, “비교연구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는 “비교방법이란 어떤 것이다”라는 논의들의 와중에서, 이런 종류의 논의들에 기초가 되는 비교의 개념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차원의 사고과정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 같다. 즉 인식론적 차원의 비교개념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기존의 학문공동체내에서는 깊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적된다. 개념에 관한 논의가 일상적 차원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필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교’의 개념에 대해서 인식론 차원의 치밀한 논의전개의 기회 마련을 본고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1) 사고양식으로서의 비교

두뇌과정의 복잡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사고는 문화라는 변수의 개입에 의해서 그 복잡성이 훨씬 더 증가되고 있는 점은 인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익히 지적된 바 있고, 그러한 결과의 논의는 內觀적(emic) 관점과 外觀적(etic) 관점에 대한 분리의 당연성에 대한 인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Harris 1968 : 568-604). 관점이라는 현상의 내관/외관 분리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과정이라는 것이 심리학적 과정에만 맡길 수 없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성장과정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의 인간현상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성장과정에서 개입된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문화적 현상을 인식론 속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관점을 내관/외관의 이분현상(dichotomy)으로 분석하는 것이 인간의 인식현상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접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 더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논리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내관/외관의 이분현상을 하나의 현상으로 제시하려면, 그 내와

외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인간의 인식과정을 이렇게 칼로 무우를 자르듯이 두 동강이로 나누어 버릴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내관과 외관의 아이디어가 언어현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현상과 인식현상의 차이를 덮어 두고 이러한 이분현상을 제안한 데에서 또 다른 문제는 잉태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두 현상 사이의 아날로지에 의해서, 언어현상의 이분현상을 인식현상으로 쉽사리 전환시킨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면, 내관/외관의 이분현상은 내관/외관의 연속현상(continua)으로 고려되는 것이 최소한 단순논리의 전개에 의한 인식과정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인식론상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란 문제를 고려한다면, 인식과정을 이분현상으로 보려는 단순논리는 쉽사리 배격될 수 있다.

필자가 이 시점에서 내관과 외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식현상에 필연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 인식주체의 성격 때문이다. 서구인들이 뉴기니의 카니발리즘을 관찰하였을 때, 그들은 ‘먹는다’라는 상황의 틀을 먼저 생각하고, ‘먹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에 대단한 흥미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 의해서 카니발리즘이라고 명명된 그 행위를 ‘전쟁놀이’라는 상황의 틀 속에서 시행한 것이다. 동일한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이한 인간의 인지과정에 개입된 인식주체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타난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영국인들의 행동과 사고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적할 수 있다 (Bohannan 1975). 인식주체라는 것은 이미 물리화적이고 생리화적인 신경세포조직으로 구성된 두뇌만을 소유하고 인식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사회의 문화에 의해서 교육이 된 두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화된 두뇌라는 것은 오관과 육감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을 걸르는(filtering)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관찰’이라는 과정 속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걸름장치들

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인식론의 차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화된 두뇌라는 ‘하드 디스크’에 이미 저장된 정보와 관찰되고 있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보가 항상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미 저장된 정보와 특정 상황 하에서 관찰되고 있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사고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라는 사고과정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호작용 과정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인식현상이며, 인류학자의 작업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인류학자의 “현지작업과 비교분석에서조차도 내성(introspection)과 외표(extrospection)는 항상 상호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단순한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 독특한 것이고, 어떤 것이 공통적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인류학자의) 자아와 (관찰대상인) 문화에 대한 일종의 반사작용인 것이다”(Peacock 1986:87).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라는 현상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관찰되고 있는 대상에 관한 정보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확증(검증이 아니라)의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교라는 것은 귀납적 논리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Nowak 1989:37)는 점이 확인된다.

관찰자가 아무런 의도도 없이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 상황 하에서라도, 문화화된 두뇌의 작용이라는 것은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의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선택적 지각이라는 심리학적 과정이라는 것은 “관찰자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직 관찰되었을 뿐이며”, 관찰대상이 된 ‘사실’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내에서만 사실”일 수 있을 뿐이지, “과학에 관한 한 원초적 사실(raw facts)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Berger & Kellner 1991:52-53). 즉 ‘사실’이라는 것은 문화화된 두뇌의 작용이라는 범주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현상이다. 논리적으로는, 바로 이 과정에서 인간현상의 상대성이라는 문제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

실'들의 특수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보편성이라는 문제를 '사실'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인간 차원의 거대한 그리고 영원한 가정임과 동시에 인간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질적인 두뇌의 존재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모든 인간사회의 의미체계는 무엇인가 공통적인 것을 지니고 있다는 함축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극단적 상대주의의 초월을 성립케 하여 준다. 만일 극단적 상대주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어떤 것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Berger & Kellner 1991 : 87). 인식현상의 상대성을 빌미로 한 상대주의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와 협박은 비교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고과정을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주의의 극단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비교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비교 없는 사고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Thinking without comparison is unthinkable)이며, "비교의 결여라는 것은 모든 과학적 사고와 모든 과학적 연구의 결여와 마찬가지로"(Swanson 1971 : 145)일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그 결과 비

〈표 1〉 Ragin이 제시한 설명적 진술들

사례수	사례들의 고유 자질	사례들의 일반 양상	사례들에 의해서 구성된 보다 큰 단위 양상
한 나	1. Geertz(1960)	4. Dumont(1970)	7. Chiro(1976)
소 수	2. Bendix(1978)	5. Moore(1966)	8. Moulder(1977)
다 수	3. 사례연구들의 집합들(예, Lipset & Rokkan 1967)	6. 대부분의 1975년 이전 양적 국가비교 업적들	9. 대부분의 1975년 이후 양적 국가비교 업적들

교사회학자들은 앞의 표와 같이 하나의 사례연구를 포함한 비교방법의 9 가지 유형에 관해서 일반화된 언급을 한다(Ragin 1989).

래긴이 사례수가 하나밖에 없는 Geertz(1960)의 *The Religion of Java*(London: Free Press), Dumont(1970)의 *Homo Hierarchicus: The Caste System and Its Implication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rot(1976)의 *Social Change in a Peripheral Society: The Creation of a Balkan Colony*(New York: Academic Press) 등을 비교 연구의 유형으로 제시한 것은 인류학자라는 개인에 의해서 관찰된 하나의 사례라는 것이 소위 사례연구(case-study)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상의 비교라는 사고과정을 통과한 비교연구라는 문제의식도 포함한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사례수가 하나인 연구들을 사례연구라고 규정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양과 숫자에 사로잡힌 인식의 물상화에 준거한 결과일 뿐이다. 그 이면과 내면에 담겨 있는 비교의 개념을 파악한다면, 그러한 비교를 우리는 '암묵적 비교'(implicit comparison)(Hsu 1979: 527)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암묵적 비교에 의해서 타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해석의 결과를 생산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연구대상에 대해서 사고과정이라는 비교를 동원하는 인류학자 개인이 소유한 문화화된 두뇌의 걸름장치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비교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인식현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

비교사회학자들이나 비교정치학자들이 흔히 “‘비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현상의 집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최명·김용호 1990)이라고 편의상 간략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고과정의 엄밀성을 따지고 보면, 유사성과 차이성이라는 것은 비교라는 사고과정의 결과에 의해서 생산된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비교는 아닌 점이 있다. “인류학에서의 비교라는 것은 하나의 명제(proposition)를 검증하거나 시

도해 보는 안목에 관련된 것이다”(Goodenough 1970 : 121). 필자가 구디너프의 정의를 인용하는 것은 비교라는 문제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은 바로 ‘안목과 관련된 것’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내관과 외관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둘러싼 영국인과 아프리카인의 인지적 공방, 카니발리즘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뉴기니인과 서구인의 차이는 어떻게 공통적인 인식기반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내관과 외관이 영원한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리고 두뇌를 공통으로 소유한 인간이라는 차원의 보편성을 만족시킬 만한 인지과정의 논의에서 도중하차하는 꼴이 된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두 개의 다른 문화에서 재산관계를 비교한다고 할 때, 각각의 사례에서 우리가 ‘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어떤 범주로 결정하게 되는가?”(Goodenough 1970 : 120) 멕시코의 아시엔다에 소속된 인력들을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인력이라는 문화적 형태(cultural form)의 내용과 증권이라는 “문화적 형태의 내용 그 자체들이 재산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적 형태의 내용(content)들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와 그 문화 속에서 살아 가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화적 형태의 역할(role)에 관련되는 문제인 것이다”(Goodenough 1970 : 120). 즉 문화적 형태에 대한 기능적 고려를 기초로 하여 우리는 멕시코의 아시엔다와 뉴욕의 증권시장간에 존재하는 재산이라는 개념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비교문화적인 상황에서 설정된 인간의 인식현상은 내관과 외관으로 이분법적인 병렬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안목들은 기능이라는 메카니즘에 의해서 연속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내관적 실체가 외관적 개념에 동일시되는 까

닭은 바로 기능이라는 점에서 적용되는 것”(Goodenough 1970 : 121)이 지적된다. 기능이라는 메카니즘이 개입된 상태의 비교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엄밀성이 추구된 직접비교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디너프는 인류학에서의 비교라는 것은 ‘기능적 유사’(functional analogues)(Goodenough 1970 : 120)의 수준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진언한다.

상사(analogy)란 것이 과학적 사고의 초기단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고과정인 것처럼, 인류학적 사고양식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구체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문화란 것이 환경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Franz Boas가 선취한 방법들이 주로 상사였던 점(Boas 1940 : 271)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주로 피력했던 인류학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기능적 유사의 설명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때의 상사는 두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속성만을 언급하는 긍정적 유사(positive analogy)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적 관계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상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속성들 사이에는 비공통적인 즉 부정적 유사(negative analogy)도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상사를 따진다는 것은 긍정적/부정적 양면을 모두 따져 보아야 하는 논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Hesse 1970 : 58). 따라서 문화적 형태를 구성하는 내용들간의 긍정적 유사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문화를 설명하려는 인류학적 사고의 중도포기로 간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것처럼, 새의 허파와 물고기의 아가미 사이에 언급되는 기능상의 유사성을 지적한 상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손과 박쥐의 날개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상의 유사성이란 문제 즉 기능적으로

는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등급되는 상동의 문제도 문화적 형태에는 상존한다. 즉 혼인이라는 문화적 형태를 고찰함에 있어서 교차종혼(cross-cousin marriage)을 구성하는 FSD(고종혼)과 MBD(외종혼) 사이에는 기능상으로는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자의 교환’(Levi-Strauss 1949)이라는 논리를 보인다. 즉 비교방법을 이용한 문화적 형태의 설명에는 구디너프가 제시한 바의 기능적 상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상동(structural homology)도 고용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인류학을 일으켜 세우던 사람들이 비교해부학의 논리적 사고를 수용했던 차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비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19세기의 생물학이 발견했던 구조적 상동과 기능적 상사의 문제(Hesse 1970 : 82)를 불평등함 없이 인류학적 사고의 진전과정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구디너프와 레비스트로스의 단순대비에서도 간파될 수 있듯이, 문화의 거시적 유형을 추구하는 입장과 미시적 맥락의 이해에 접근하려는 입장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논리의 차이가 바로 구조적 상동과 기능적 상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구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상동의 비교논리는 “이상형(ideal type), 원형(archetype), 목적론적인 계획(natural plan)”(Hesse 1970 : 83)을 추구하고 결과를 생산해 내지만, 기능적 설명을 우선시키는 상사의 비교논리는 “구성요인들 사이의 인과적 문제와 유사성으로부터 나오는 추론정당화의 논리적 문제를 만족시켜야 하는”(Hesse 1970 : 100) 과정적인 절차가 전제된다. 이미 계획된 어떤 형태의 모형에 목적론적으로 접근하는 설명방식은 근본적으로 동어반복의 논리이며 과정을 경시하는 도그마일 수 있다. 따라서 과정적 절차, 즉 과학성을 존중하는 기능적 상사의 비교논리를 선호하는 필자의 입장은 정리되는 셈이다.

2) 분석과정으로서의 비교

앞에서 우리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비교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비교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전자가 이론(theory)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후자는 실천(praxis)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천의 차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비교연구는 단순한 검사(inspection)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 전제조건에 의해 인도되는 선택(selection)의 문제”(Kaplan & Manners 1972 : 8)라는 제한조건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선택이라는 과정은 필연코 자료의 분류를 선행작업으로 삼아야 하는데, 분류라는 것이 단순한 기계적인 차원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개입가능한 방해요인에 의해서 전체의 비교방법이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비교방법이 진행되기 전에 취급되어야 하는 자료처리의 단계에서 잘못된 분류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수집된 자료는 행위나 구조 그 자체를 말하는 것, 행위나 구조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대상에 대한 민속지연구가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 등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Köbben 1967 : 10).

필자는 비교의 실천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과정을 분석과정으로서의 비교라는 개념이 안고 있는 절실한 문제의식으로 생각한다.

첫째, 이 문제의 중요성은 일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편성을 확보함으로써 분과학문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인류학의 과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본질적으로 내관적인 문화적 형태를 어떻게 외관적 개념으로 ‘번역’을 해 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환언하면, 외관적 개념의 능력에 의존해서 어떻게 내관적 문화형태를 서술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번역’의 타당성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문화형태의 역할, 즉 기능이라는 메카니즘에서 담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일상생활의 의미를 사회과학적 의미라는 또 다른 의미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작업”(Berger & Kellner 1991 : 56)에 충실하면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번역의 문제 때문에(Nida & Taber 1974) 의미를 구성하는 변별적 자질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의미체계가 다른 타문화를 해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경우에는 이 전환과정에서 또 다른 차원의 번역문제가 발생한다. 민속지적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번역의 문제는 번역주체와 번역대상 사이에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비교의 상황을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위의 문제에 후속적으로 대두되는 점은 비교대상의 등가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문화형태를 구성하는 내용과 역할을 등가비교한다든지, 문화외적 조건과 문화형태를 등가비교한다든지, 문화의 구성물(artifacts)과 문화를 혼동한다든지”(Goodenough 1970 : 126) 하는 비교분석에서의 잘못에 대한 경계가 이의 중요한 논의로 포함될 수 있다. 즉 비교대상에 대한 적절한 개념화의 문제로서, 비교의 수준이 달라지면 그 결과는 순수성(genuine)을 잃어 버리고 허위성(spurious)을 지향하게 마련이다(Nowak 1989 : 47). 등가수준의 유지문제는 엄격한 변수통제에 의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사회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비교대상이 횡문화적일(cross-cultural) 때에는 내관과 외관이라는 문제의 개입에 의해서 사고과정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비교연구는 “내관 민속지의 결여와 만족스러운 외관 개념들의 결여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Goodenough 1970 : 124)

이누잇과 진도인의 샤머니즘을 비교하는 연구자는 외관개념으로 개발된 ‘샤머니즘’이란 용어에 의해서 두 문화의 영적 현상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관 민속지의 차원에서 보면, 이누잇 문화에서 샤머니즘을

구성하는 영적 힘의 원천과 진도사회에서의 그것은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기능적 상사 차원의 직접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누잇 사회에서 영적 힘의 원천은 獸靈이고, 진도사회에서의 그것은 死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비교를 강행하게 되면, 그 과정은 맥락을 고려하는 기능적 상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그 결과는 허위적인 것일 가능성이 커진다. 환언하면, 이러한 경우에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문화비교의 과정은 구조적 상동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 상동이란 비교방식은 외관 민속지의 생산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특수한 문화들의 맥락적 비교보다는 인류문화의 보편성을 추구하게 된다.

셋째, 이미 사고과정으로서의 비교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로서, 암묵적 비교의 분석과정에 원천적으로 내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사회를 연구하는 서구출신의 인류학자가 중국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문화형태로서 조상제사라는 문화를 대할 때 발생하는 사고과정으로서의 암묵적 비교가 생산하는 민속지적(ethnographic) 자료의 결과는 중국문화의 내부인에 의하여 검색됨으로써 문화해석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프리드만(Freedman)과 울프(Wolf)는, 중국에서는 조상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는데, 두 사람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공포대상이라는 정보와 그 속성을 비교의 전제로 삼아서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중국의 조상을 설명한다. 이에 반하여, 슈(Hsu)는 그러한 설명의 배경에 암묵적으로 깔린 아프리카 자료를 보는 서구적 안목의 걸림장치를 지적한다. 서구학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프리즘을 통과한 관점을 중국자료에 적용시킴으로써 “父子認知와 世代繼承이라는 중국의 문화적 공리로 비추어야 할 조상령의 문제를 오해하고 있다”(Hsu 1979 : 527)는 것이다. 중국인인 슈의 견해를 수용하게 되면, 아프리카의 자료와 비교된 프리드만과 울프의 중국문화에 대한 외관적 해석은 중국문화의 내관에 의해서 비교분석의 적실성이 확인될 수 있다. 즉 ‘명시적-체계적

비교'(explicit and systemic comparison)(Hsu 1979 : 527)에 의해서 암묵적 비교는 방법상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점점됨 이후에 논의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비교의 실천 방안들일 수 있다. 이 부분들은 모두 비교사회학에서 많이 발전시켜 둔 방법적인 기술들로 메꾸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문화비교의 적정수준

문화비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라는 개념의 특수한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문화라는 개념에는 추상적인 차원(보편성)의 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상적인 차원(특수성)의 논의도 있다. 전자는 대문자로 표현되는 Culture일 것이고, 후자는 부정관사 a가 붙은 culture 또는 복수형의 cultures로 이해될 수 있다. 본란에서 문화비교라고 할 때의 문화는 후자의 경우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특수성 차원의 문화(culture)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보편성 차원의 문화(Culture)에 대한 이론적 제한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문화비교에 적용되는 가능한 수준을 인류학설사상의 입장에 연관시켜서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비교방법의 구체적인 대안적 모형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필자는 비교방법(comparative method)과 인류학설사상의 두 가지 주된 이론적 경향들(진화론적 접근법과 구조기능론적 접근법)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비교단위의 규모면에서 분류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적 접근법들과 소규모비교와 대규모비교를 교차시킴으로써 생산되는 모형적 도표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를 제시할 수 있다: 진화론적 접근(evolutionary approach) - 대규모 비교연구(large scale)(I :

EL), 구조기능주의적 접근(structural-functional approach) - 대규모 비교연구(large scale)(II : SL), 진화론적 접근(evolutionary approach) - 소규모 비교연구(small scale)(III : ES), 구조기능주의적 접근(structural-functional approach) - 소규모 비교연구(small scale)(IV : SS). 이 도표의 구성으로부터 필자는 비교연구방법과 관련된 인류학 이론 형성의 경향을 설명하고 요약할 뿐만 아니라, 비교방법적인 사고에 근거한 미래의 가능한 연구분야를 조망하고자 한다.

〈표 2〉 비교의 규모와 수준

	진화론적 접근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대규모	I : EL	II : SL
소규모	III : ES	IV : SS

첫째, EL(I)을 인류학적 사고의 발달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 범주에서는, 문화진화론에서 발전시킨 진화론적 아이디어가 주된 관점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생물학적 진화론의 차원에서 볼 때, 비교해부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계통발생이라는 개념이 규모의 수준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 Julian Steward와 Elman Service 등의 문화진화론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통합수준이라는 그들의 주된 접근방식이 대규모 비교연구 방법과 진화론적 수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비교에 의한 진화론적 접근이 추구하는 것은 일반화의 전략에 의한 보편성의 추구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좋은 예로는 Yehudi Cohen의 대규모 비교연구(large-scale comparative studies)(Cohen 1968)를 들 수 있다.

두번째로 SS(IV)에 관하여 살펴보자. 인류학 내에서의 구조기능주의적 접근법의 이론적 근거는 영국의 사회인류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부류는 구체적 주제와 사회집단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기능주의 학파는 전체로서의 사회를 묘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규모 비교연구를 무시한다. Naroll은 작은 지역내에서의 비교연구를 공변이(concomitant variation)연구라고 불렀고(Naroll 1968), 이것은 Eggan이 통제비교방법(the method of controlled comparison)(Eggan 1954)이라고 말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며, 일찍이 Durkheim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을 Cohen의 거시민속지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통계적 비교연구 또는 구조기능주의적-소규모 비교연구에 근거한 '미시민속지'(Fischer 1968)라는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유교이념이라는 대전통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의 소전통들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상제사의 구조를 비교하거나, 동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내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기능에 관하여, 또는 제주도의 潛嫂와 일본의 해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인과 차별적인 요인들이 각각의 문화전통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II(SL)와 III(ES)의 범주를 포함하는, 인류학자들의 부차적인 관심분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달리 말해서, 인류학 연구의 이 두 경향은 여태까지 부차적인 관심분야로서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장래의 연구에 있어서는 주된 관심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비교문화자료(Human Relations Area Files)를 설립하고, 사회구조의 연구(Murdock 1949)를 통한 비교문화연구를 향한 새롭고, 체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George P. Murdock에 의해 이끌어지는, 구조기능주의적-대규모 비교연구에 중점을 둔 집단이 있음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민속지적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의 전영역을 서술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비교연구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가설의 비교문화적인 검증방법은 사회, 행동과학에서 유효한 일반이론이 발달하는데 필연적이며, 이러한 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래프'(HRAF)가 개발되었던 것이다(Lagace 1974 : 6). 문화적 자료의 보관소로서, 그리고 정보검색 시스템으로서의 비교문화자료는 기술발전의 진로를 따라 대규모 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특정한 문화요소를 검증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일례로서 의학분야에서 개발되었던 컴퓨터 목록 방법을 수용함으로써 연구상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비교문화자료 주석 도서목록 시스템(Human Relations Area Files Annotated Bibliographic System(HABS))을 1964년에 개발한 것을 들 수 있다. HABS는 도서자료들의 수집, 구성, 축적, 조작, 검색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부호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연결되어 있는 일단의 원칙, 방법, 과정이다(Koh 1973 : 169-170). 최근에 개발된 CD-ROM을 사용한 래프 자료의 이용방식은 SL의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다.

비교문화적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전세계 문화자료들에 통계기술을 적용시킨 비교연구방법 - 현재 총체방법(hologeistic method)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 - 이다(Lagace 1974 : 6). 달리 말하면, 래프는 Naroll이 이미 언급했듯이, 개별서술적인(ideographic) 것과 법칙정립적인(nomothetic) 것의 두 가지 정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는 시간과 공간에 배치된 특수한 세부사항들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쉰 인간사회에 관한 엄격한 일반화를 하려고 시도한다(Naroll 1968). 필자는 총체방법(hologeistic method)내에서의 법칙정립적 아이디어를 세계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비교연구자와 구조기능주의자들간의 포괄적인 공유영역임과 동시에 두 관점이 수렴되는 시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III : ES라는 범주에 관하여 두 가지 상이한 방향으로부터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그중 한 방향은 M. Sahlins의 특수진화와 일반진화간의 구분이다(Sahlins 1960). 이 범주는 미시진화론적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생물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개체발생론의 분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와 문화에 관한 역사적이고, 통시적인 접근법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향은 인류학적 사고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전체로서의 문화와 개인(개체)(individual)의 문

제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개체) 개념은 특수진화의 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일반진화론은 특수진화론과는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개인(개체)(individual) — 소규모(small) — 다중심(polycentric) — 탈중집화(decentralization) — 미래화(futurization) 對 집단(group) — 대규모(large) — 단일중심(monocentric) — 중집화(centralization) — 근대화(modernization)로 대별되는 개념의 범주화를 위한 일종의 이분법을 어떠한 가치판단도 없이 고려해 볼 수 있다면, 상기한 용어들을 비교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상대주의(relativism)라는 입장 하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문화상대주의자들의 반응이 오늘날 비교문화분석을 가능케 하는 복합적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Udy 1973 : 255). 여기서, “소규모(small-scale)”라는 용어는 상대성에 근거한 개체화일 뿐만 아니라 비교를 위한 숫자(numbers)를 표현할 수도 있다. 진화론적인 접근—소규모 비교연구의 모형이 비교분석에 있어서 경시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싶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전인류에 적용되는 일반화의 비교문화적인 탐구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비교하는 사회들간의 광범한 차이와 각각의 사회 속에 있는 개체들 사이의 큰 차이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Driver 1973 : 361)라는 경고는 비교방법이 지향하는 일반화의 명분 하에 비교보다 앞서서 제기되어야 할 개체라는 실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화라는 것은 독특함과 다양함의 상실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조로움(monotony)을 의미하는 것”(Köbben 1970 : 582)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요한 인류학의 이론적 정향들을 비교연구방법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인류학사의 주류를 섭렵한 셈이고, 그 결과 비교연구를 위한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틀을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대규모 비교(EL), 구조기능론—소규모 비교(SS), 구조기능론—대규모 비교(SL), 진화론—소규모 비교(ES). EL과 SS의 두 범주는 이미 발달되었으며, 비교문화연

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가능한 방향이 될 수 있는 세번째 범주인 SL은 원래 세계적인 비교연구자들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비교연구는 컴퓨터 분야의 기술발달에 의해서 고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범주(ES)도 비교연구에 있어서 비교라는 문제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현상학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과학을 한다는 집단의 심층에서 고의적으로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자주 무시되어 왔던 개인(개체)적, 역사적 접근방법의 소산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 점이 바로 문화비교가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점일 것이다.

5. 맺음말

비교의 의도는 지극히 기초적으로 '이해'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인식구조 속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선이해의 문제다. 즉 선이해라는 장르가 문화를 품고 또는 문화 속에 있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선이해에는 추상적·보편적 차원의 선이해와 문화화된 특수한 선이해에 대한 주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비교에 의해서 인간문제를 설명하려는 관점들은 전자의 존재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인간의 인식차원에서 본질적으로 비교의 불가능을 인정하는 관점들은 후자의 존재를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비교방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성의 확보라는 전략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인식론상의 공정한 비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선이해라는 장르의 존재 때문에 상대성의 문제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비교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두 가지 문제를 본고의 중심주제로 선정하였다. 비교의 개념에 관한 것이 본고의 핵심적인 주제였고, 학설사적인 차원에서 문화비교의 적정수준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사항들을 수집·정리하였다. 그리고 “비교란 무엇이며, 그것이 인류학이란 학문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였다. 먼저, 후반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한다면, 비교는 인류학이 여명하는 과정에서 민족학으로부터 인류학으로의 질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화의 특수성에 최우선적 관심을 보이는 민족학적 차원의 ‘다름’을 추구하는 비교로부터, 일반화에로의 길을 열게 하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같음’에 대한 질문을, 비교에 의해서 유도함으로써 인류학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법칙정립성을 갖춘 학문분야의 모습을 지향하는 방법론을 획득하였다고 생각된다.

비교는 두 가지의 차원으로 분리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양식으로서의 비교와 분석과정으로서의 비교라는 개념분화에 의해서 비교에 관한 인류학적 또는 학문적 관심은 보다 심도 있는 인식론적·방법론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고양식의 차원에서는 사례연구를 기초로 하는 암묵적 비교의 문제를 다루었고, 비교과정에 개입되는 사고양식으로서의 기능적 상사와 구조적 상동에 관한 문제를 인류학사적 차원에서 조명해 보았다. 분석과정의 차원에서도 인류학사의 흐름이라는 틀하에서 진화론적 입장과 구조기능론적 입장에 비교연구시의 규모문제를 접합시킴으로써 인류학내에서 시행되어 온 비교방법의 모형들과 미래 지향적인 개발가능한 비교방법의 모형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인류학 또는 다른 학문분야에서 비교를 언급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일반화의 전략에 의한 법칙정립적 과학성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과학성의 확보과정을 역순으로 점검해 보면, 비교분석에 의한 일반화과정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즉 연구자가 선택한 충분한 고수준의 추상성을 조건으로 한 하나의 범주를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고(Köbben 1970 : 582), 그 다음 차례가 일반화인데, 이 일반화로의 전환과정에서 구

체성과 실재성을 배격하는 작업이 병행됨으로써 문화라는 실재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는 내관과 외관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번역의 문제와 실재와 추상 사이에 개입되는 물상화의 문제를 동시에 위협부담으로 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반화에 의해서 생산된 추상적 개념이란 것은 실재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조작된 실재’(created reality)이기 때문에, 비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실재와 추상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인식론적이고 현상학적인 문제에 귀착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위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비교사회학자들은 ‘맥락을 고려하는 비교’(comparison with context)의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개체의 실재성은 의미를 통하여 구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한 분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의미의 상실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맥락을 고려하는 비교는 의미를 고려한 비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단계의 작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양자의 입장은 실재를 보는 본질적 관점의 차이에서 더욱 큰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곧 문화비교의 적정수준과 한계를 가늠하는 임계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崔明·金容浩

1990 『比較政治學序說』(全訂版), 서울 : 法文社.

Ackerknecht, Erwin M.

1954 "On the Comparative Method in Anthropology," *Method and Perspective in Anthropology*, ed. by Robert F. Spencer,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pp.117-125.

Berger, Peter & Hansfried Kellner

1991 *Sociology Reinterpreted : An Essay on Method and Vocation* (임현진·김문근 역, 서울 : 한울아카데미)

Boas, Franz

1940 "The Limitations of the Comparative Method in Anthropology," *Race, Language and Culture*, New York: Free Press, pp.270-280. (orig. 1896).

Bohannan, Laura

1979 "Shakespeare in the Bush," *Ants, Indians and Little Dinosaurs*, ed. by Alan Ternes, New York.

Cohen, Yehudi

1968 "Macroethnology : Large-Scale Comparative Studies,"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James A. Clifton, ed., Boston: Houghton Mifflin, pp.402-448.

Driver, Harold E.

1973 "Cross Cultural Studies,"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John J. Honigmann, ed., Chicago : Rand McNally, pp. 327-367.

Eggan, Fred

1965 "Some Reflections on Comparative Method in Anthropology," *Context and Meaning in Cultural Anthropology*, ed. by Melford E. Spiro, New York : Free Press, pp.357-372.

Eggan, Fred

- 1954 "Social Anthropology and the Method of Controlled Comparison," *American Anthropologist* 56 : 743-763.
- Fisher, J. L.
1968 "Microethnography : Small-Scale Comparative Studies,"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James A. Clifton, ed. Boston : Houghton Mifflin, pp.375-401.
- Goodenough, Ward H.
1970 *Description and Comparison in Cultural Anthropology*, Chicago: Aldine.
- Harris, Marvin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New York: Thomas Y. Crowell.
- Hesse, Mary
1970 *Models and Analogies in Science*, Notre Dame, Indiana : Univ. of Notre Dame Press.
- Hsu, Francis
1979 "The Cultural Problems of the Cultural Anthropologist," *American Anthropologist*, 81(3) : 517-532.
- Jorgensen, Joseph G.
1979 "Cross-Cultural Comparison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8 : 309-331.
- Kaplan, David and Robert A. Manners
1972 *Culture Theory*, Englewoods Cliffs : Prentice-Hall.
- Köbben, André J. F.
1967 "Why Exceptions? The Logic of Cross-Cultural Analysis," *Current Anthropology* 8(1-2): 3-34.
1970 "Comparativity and non-Comparativity in Anthropology," *A Handbook of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eds. by Raoul Naroll & Ronald Cohen,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pp.581-596.
- Koh, Hesung C.
1973 "HABS : A Research Tool for Social Science and Area Studies," *Behavior Science Notes*, 8-2 : 169-199.
- Lagace, Robert O.

- 1974 *Nature and Use of the HRAF Files: A Research and Teaching Guide*,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s.
- Leach, Edmund
- 1968 "The Comparative Method in Anthropolog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 David L. Sills, ed. New York: The Free Press, pp.339-345.
- Levi-Strauss, Claude
- 1963 *Totemism*, Boston: Beacon Press.
- Murdock, George P.
- 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Macmillan.
- Naroll, Raoul
- 1968 "Some Thoughts on Comparative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Methodology in Social Research*, Hubert M. Blalock and Ann B. Blalock, eds., New York: McGraw-Hill, pp.236-277.
- Nida, Eugens & Charles R. Taber
- 1974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United Bible Societies. (金容沃 역, 1991, "번역의 이론과 실제," 「도올논문집」, 김용욱 최영애 공저, 서울: 통나무, pp.157-275.).
- Nowak, Stefan
- 1989 "Comparative Studies and Social Theory," *Cross-National Research in Sociology*, ed. by Molvin L. Koha, Newbury Park, CA: Sage Book, pp.34-56.
- Peacock, James
- 1986 *The Anthropological L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 Henry Teune
-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Interscience.
- Radcliffe-Brown, A. R.
- 1952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Ragin, Charles
- 1989 "New Directions in Comparative Research," *Cross-National Research*

in *Sociology*, ed. by Melvin L. Kohn, Newbury Park, CA: Sage Book, pp.57-76.

Rosenau, James N.

1975 "Comparison as a State of Mind,"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8(1-2): 57-61.

Sahlins, Marshall D.

1960 "Evolution: Specific and General," *Evolution and Culture*, Marshall D. Sahlins and Elman R. Service, e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12-44.

Steward, Julian

1955 *Theory of Culture Chang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Swanson, Guy E.

1971 "Framework for Comparative Research: Structural Anthropology and the Theory of Action," *Comparative Methodology in Sociology*, ed. by Ivan Vallier,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p.142-202.

Udy, Stanley

1973 "Cross-Cultural Analysis: Methods and Scop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 253-270.